■ 특별기고 ■

정호양씨 반론기사에 대하여

이 경 진
포천 미술협회 지부장

정호양씨의 거듭된 왜곡과 허위기고에 반론한다는 것이 딱히 같은 사람으로 편하될 소지가 없지 않으나 많은 분이 이에 현혹되거나 진실이 가려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반론한다.

정호양씨는 지난번 특별기고를 통해 지역 이기심을 탓하며 미협에서 비엔날레를 맡으려는 마찰로 큰 국제행사가 위기를 맞고 있고, 미협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지부장이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게재한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반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칭송과 충언을 했지 포천을 악평한바 없다고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정호양씨가 소속된 의정부미협이라면 모를까 포천미협에 대해 훈수를 두듯 왈가왈부함은 바르지 못한 처신일 뿐 아니라 내정간섭으로 오해될 수 있고 포천미협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정호양씨가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번 경기2청사 전시회에서 정호양씨 본인 작품 판매는 차지하고 작품판매를 한 9명 중 3명의 작가에게 각 50만원씩 150만원을 각출하여 정호양씨 명의로 특별회비 100만원을 납부하고 차후 입금하지 않은 50만원은 다른 부대행사에 사용하였다며 떳떳함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며 지나친 과욕에 기인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설사 기부를 요구하여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부자 명의로 즉시 기부 처리해야 마땅하고 금액도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 전액을 입금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정호양씨는 문제가 야기되자 차후에 이런 절차를 밟았고, 동기야 어찌되었든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요구에 의해 돈이 오고갔다면 순수를 지향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와 부담을 주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된다.

정호양씨가 주장하는 포천미협에서 주관하는 지역작가전(?)은 당사자인 포천미협은 물론 기획위원회에서 공론화된 바가 없는 정호양씨 개인생각으로, 포천미협 주관으로 지역작가전을 계획하거나 조직위원회나 기획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금시초문인 얘기를 마치 포천미협을 생각해서 제안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 포천미협지부장의 비엔날레 위원직과 관련, 왜 미협지부장으로서 위원직을 도중 사퇴의사를 밝혔는지 이실직고 하고 싶으나 개막을 수일 앞둔 지금은 때가 아니며 행사가 종료된 적당한 시기에 이번 비엔날레에 대해 총체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호양씨는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경기북부작가회 회원 모두에게 평화지대전과 깃발전을 경기북부작가회와 포천아시아비엔날레가 주최하고 가칭 경기북부작가회 부속 경기북부DMZ미술위원회 주관으로 전시한다며 마치 결정된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지한바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전시기획위원에서 논의 중 결론 도출이 안돼 백지화되었으며 이 여파로 비엔날레 행사 전반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불과 비엔날레 개최를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현상이다. 이에 기획위원장은 행사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감독과 시청 담당자 합의하에 특별전을 기획위원장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양해 받고 전시기획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미협지부장에게 뒷수습을 부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호양씨는 미협지부장이 주도하여 특별전을 기획하고 행사를 말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자기가 추진하던 특별전 무산에 대해 앙심을 품고 포천미협과 지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차후 비엔날레 결과에 책임 회피하려 허위사실을 재차 신문을 통해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총감독이나 기획위원에게 일언반구 한마디의 제안이나 합의 없이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총감독과 상의되었고 정호양씨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이 과정에 미협지부장은 관여된바 없으며 조직위원이나 기획위원이 입장이 아니라 지역 미협지부장으로서 시와 기획위원장의 갑작스런 부탁에 8월 중순부터 비엔날레 사무실에 혼자나와 뒤늦은 행사준비에 마음고생과 더불어 사생활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비엔날레 성공을 염려하고 자기 책무에 충실하며 포천문화발전을 기원하고, 포천미협을 존중한다고 호언하는 사람이 지금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생각과 처신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쉽다. 정호양씨는 입으로만 행동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저질 언론 플레이 외에는 없다. 신문에 기고했듯이 그렇게 포천을 위하고 비엔날레 성공을 위한다면 조직위원 겸 기획위원으로서 스스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와 헌신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자기 논리가 합리화되고 신문기고를 남이 인정하는 계기가 될 듯 싶은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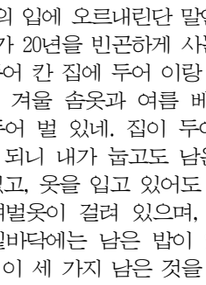
다시금 밝히지만 포천아시아비엔날레를 미협이 주관해야 한다고 거론은 물론 위원회에서 논의된바 없다. 그러나 2005 아시아미술제를 돌이켜 볼 때 포천에서 하는 행사니 포천미협과 포천지역 사람이 주도해야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고 이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고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지역 경제에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주가 되어 조직의원회를 구성하고 대행사에 행사를 일임할게 아니라 조직위원에서 직접 주관하되 외부에서 필요한 큐레이터나 커미셔너, 전시기획자를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며 외국작가 섭외도 지역이 함으로서 차후에 그들과 또 다른 연계를 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시기획위원의 총 사퇴는 경기북부작가회가 주최 및 주관하려던 깃발전이나 평화지대전과 무관하지 않다. 비엔날레 주최 및 주관을 포천미협에서도 요구한바 없는데 임의단체인 경기북부작가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작가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특정단체에서 주최 및 주관함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행사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기획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의 기획위원회는 이미 초대된 작가를 추인하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작가 선정이나 작품심의, 개막식 등은 훨씬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어야 했다. 결국 기획위원회 심의 없이 초대작가와 개막식 행사 및 대행사가 임의 결정되었다. 공교롭게도 개막식에 정호양씨와 관련된 전통타악 퍼포먼스 그룹인 코티가 공연 예정이다. 그리고 이 날 있었던 참여 작가와 작품 관련 프리젠테이션에서 김광우 교수께서 총감독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나 역시도 짧은 기간임을 감안 이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행사진행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 개인적으로, 그런 큰마음을 김광우 교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韓國의 선비정신 · 78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 … 가르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김정국은 김안국의 동생이다. 그가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였다. 그 지역에 이동(李同)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성격이 급했던 그는 결국 밥그릇을 던지고 아버지를 때렸다. 그러자 마을 향리가 이를 고발하여 이동을 감영(監營)에 가두었다.

김정국은 감사로서 이 사건을 심문하게 되었다. 당시 아비를 때린 죄는 마땅히 중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심문을 하기도 전에 죄인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김정국은 너무나 쉽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괴이하여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중한 죄를 지었다. 마땅히 사형에 처해질 것인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러자 죄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사형이라고요? 이놈이 무식하여 그 죄가 사형에 처해질 죄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정국이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일러주었다.

"부자지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를 때리는 것은 천리(天理)를 어기고 신하가 임금을 어기는 것과 같다. 임금을 거역한 죄는 곧 역모이니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죄수는 낯빛을 바꾸면서 땅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사형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줄 알았다면 어찌 아비를 때렸겠습니까? 절 좀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성심껏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김정국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죄수에게 말했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에 처하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이번 일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어찌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쓸데없는 물건을 모은단 말인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책 한 시렁과 거문고 하나, 벗 한 사람, 신발 한 켤레, 베개 하나, 바람 부는 창 하나, 햇볕 쬘 마루 하나, 차를 달일 수 있는 화로 하나, 늙은 몸을 부축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를 찾아다닐 때 몸을 의지할 나귀 한 마리뿐이네, 이 열 가지는 비록 번거롭기는 하지만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네.

늙은이가 만년을 보내는 데 있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인가? 분주하고 고단한 중에도 매양 예전의 언덕과 골짜기에서 누리던 재미가 생각날 때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몸을 빼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나.」

김정국(金正國)

1485년(성종 16)~1541년(중종 36).

본관은 의성이며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이다. 열 살과 열두 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모부에게서 양육되었다. 1509년(중종 4)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이조정랑, 사간, 승지 등을 지내고, 1518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다음 해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으로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1537년에 복직되어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그후 병조참의 · 공조참의를 지내고,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 · 병조 · 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사재집』을 비롯해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역대수수승통입도(歷代授受承統立圖)』, 『사재척언』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발전적 안목 제시하는 계기

포천문화원 임원 송파문화원 방문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9월 18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문화원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송파문화원을 선정했으며, 선진문화원과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적인 방향모색 및 잘된 점을 접목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방문은 이종학 송파문화원장의 환영사 및 연혁, 주요추진사업 설명,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의 인사와 두 문화원 간 기념품 교환, 원사견학 순으로 진행되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용산에 소재한 중앙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고고관 및 아시아관 등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우수한 우리역사 유물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선진문화원 견학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과 더불어 지역문화사업 및 문화원 발전을 위한 임원들의 문화사업의 발전적 안목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은 9월18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문화원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뮤지컬 이야기 #28

셜리 템플(Shirley Temple, 1928~), 1930년대 미국의 희망

지금 같으면 유치원에나 다녀야 할 어린아이가 1930년대 오랜 경제공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셜리 템플(Shirley Temple)은 1930년대 할리우드에서 신동으로 불리며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아역스타였다. 10년 동안에 40편이 넘는 영화를 찍을 정도로 어느 성인배우보다도 인기가 많았으며 최고의 상품가치를 지닌 스타였다. 셜리 템플 인형과 드레스 그리고 머리에 꽂는 나비매듭 리본 등이 상품화되어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갔다. 반면에 많은 셜리 템플의 영화에서 묘사된 인종차별적인 장면들로 인해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할리우드에 의해서 자행되는 아이의 성애화(the sexualisation of child)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가 '셜리 템플, 영화의 가장 어리고 성스러운 괴물' 이라는 그림(Shirley Temple, The Youngest, Most Sacred Monster of the Cinema in Her Time, 1939)을 그릴 정도로 1930년대에 끼친 셜리템플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셜리 템플은 댄스학교를 다니던 3살 때인 1931년에 에듀케이션 영화사(Educational Pictures)에 발탁되어 영화를 시작했으며 20세기 폭스 영화사(20th century Fox)와 1933년에 전속계약을 맺은 이래 세계적인 아역스타로 발돋움 했다. 셜리 템플의 스타성은 1934년에 만들어진 영화 〈브라이트 아이즈(Bright Eyes)〉에 잘 나타나 있다. 6살 밖에 되지 않았던 셜리 템플은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극장으로 초유의 관객들을 끌어 들였다. 이 영화는 거의 파산직전에 놓여 있던 20세기 폭스 영화사를 기적적으로 구해냈는데 셜리 템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첫 영화이기도 했다. 8살이 된 1936년은 셜리 템플의 출연료가 기하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몸값이 치솟았고 그녀의 영화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미국 사회에 희망과 낙관주의를 가져왔다. '미국에 셜리 템플이 있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한 말이다. 경제공황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해 주는 셜리 템플의 존재가 1930년대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셜리 템플의 극중 배역은 대부분 부모중의 한 사람이 없거나 모두 죽은 결손가정의 아이였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린 아이, 이것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관객들로 하여금 셜리 템플의 부모역할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 상투성은 수 년 동안 20편이나 되는 영화 속에서 지속되었지만 박스 오피스의 1위를 고수하며 끊임없이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셜리 템플의 댄서로서의 능력, 특히 탭 댄서로서의 능력은 잘 알려져 있다. 이미 5살의 나이에 복잡한 탭 댄스 안무를 소화해 내었다. 물론 그녀의 능력에는 유능한 조력자가 있었다. 유명한 댄서였던 빌 로빈슨(Bill Robinson)이 셜리 템플의 댄서로써의 능력을 발전시켜 주었다.

빌 로빈슨은 셜리 템플을 위해 개인적으로 탭 댄스를 가르치기도 했으며 그녀에게 주어진 안무를 발전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빌 로빈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미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특히 남부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는데 그들은 영화 속에서 빌 로빈슨이 셜리 템플과 함께 연기하는 것 자체를 혐오했으며 특히 손을 잡는 장면은 미국 남부의 여러 도시에서 삭제되어 상영되기도 했다.

셜리 템플은 1935년 7살의 나이에 미국 아카데미상 아역상(the special Juvenile Performer Academy Award)을 받았는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유명한 스타가 되어야만 남길 수 있는 핸드프린팅(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라우만스 차이니즈 극장(Grauman's Chinese Theatre) 앞뜰에서 매년 행사가 진행)-셜리 템플은 핸드프린팅을 남긴 최연소 여배우로도 기록되고 있다. 21살이 되던 1949년에 셜리 템플은 영화계에서 은퇴를 했다. 대중들은 성인이 된 셜리 템플을 인정하려들지 않았으며 어린 셜리 템플을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했다. 그녀 역시 변화하는 영화산업에 적응하는 것 보다 가족들을 꾸리는 일에 열중했다. 1967년부터 공직에 몸을 담기 시작한 셜리 템플은 가나, 체코 대사를 역임하며 1990년대 까지 성공적인 외교관으로 만년의 인생을 보냈다.

현재 셜리 템플의 영화 〈소공녀(The Little Princess, 1939)〉가 시중에 DVD로 발매되고 있는데 아역배우로써의 전성기는 지난 나이지만 첫 번째 총천연색 영화이며 셜리 템플의 매력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이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2)

복수한 「삼형제」

내 고향 포천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여행을 떠나 기여코 복수하고 돌아 온 장한 세 형제의 이야기가 전하여져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를 둔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무(땔감)를 하고 어머니는 산나물을 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날센 여우를 만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함께 산 속으로 갔던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장성(長成: 크게 자라서)하여 복수를 하게 된다.

"내 비록 백년 묵은 꼬리 아홉 달린 여우에게 물려서 목숨을 잃고 죽지만 내 아들 삼형제는 반드시 부모의 원수를 갚는 효자가 되게 키워 주오."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한 유언)

그래서 아직 어린 삼형제는 마을 촌장님(존위 생원) 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공부와 무예를 익히며 살았다 한다. 큰 아들이 스무살이 되던 해 촌장님은 세 아들에게 당부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길에 오르도록 하여라."

촌장님의 준엄한 당부는 마을 안팎을 쩌렁 쩌렁 울렸다 한다. 그런 다음 큰 바늘이 녹쓸기 전에 돌아 오기로 약속하였다. 활, 칼, 창 등의 무기와 짚신, 미투리도 열 켤래 준비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한 것은 물론이었다.

드디어 장도(壯道:장한 길)에 오르는 날이 왔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떠난지 이틀만에 깊은 산 속 세 갈래 길을 만났다. 그래서 삼형제는 3일을 기약하고 한 길씩 맡아 떠났다. 큰 아들은 첫째 길에서 점잖은 노파를 만났는데 매우 상냥하여 길을 안내 받기로 하였더니 치마 밑으로 여우의 꼬리가 흘깃 보였다. '바로 이 노파가 늙은 여우로구나' 생각하고 단칼로 목을 내리쳐 죽으니 아홉꼬리여우였다. 여우 껍질을 벗겨 목에 걸고 약속장소인 세 갈래 갈라진 길목으로 향하였다. 둘째 아들이 만난 것은 노랑 저고리 분홍 치마를 입은 처녀가 묻지도 않은 길을 안내하겠다고 산나물 바구니를 옆에 끼고 궁둥이를 좌우로 살래 살래 흔들며 나타났다. 한참 흘려 뒤따라 가다 보니 꼬리 치마 밑에서 여우 털이 흘날리는게 보였다.

"옳다. 네 년이 바로 내 부모님의 원수 백년 묵은 원수구나 칼 받아라"

소리치고는 단 칼로 목을 치니 꼬리 아홉달린 여우였다. 둘째도 여우 껍질을 벗겨 목에 걸고 세 갈래 길로 왔다. 셋째도 농악대와 함께 춤을 추는 늙은 노인으로 둔갑한 여우를 잡아 껍질을 벗겨 세 갈래 길로 와 삼형제는 복수에 성공하였다. 효자 삼형제는 부모의 원수를 갚은 용사로 나라의 표창을 받았다. 어느 마을의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효자 이야기로 전해온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新凉入江山(신량입강산)

학림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新凉入邸氣和同(신량입저기화동)
신량이 입저하니 기운이 화동하고

祈穀皆民願順風(기곡개민원순풍)
모두가 풍년되기를 빌고 우순 풍조되기를 비나니

秋夜蛩鳴堂庭內(추야공명당도내)
가을 밤 마루 부엌에서 귀뚜라미 울어대며

老愧蟬唱洞庭中(로괴선창동정중)
동정가운데 고목 느티나무에서는 매미가 노래부르네

前郊稻穟期農裕(전교도렴기농유)
앞뜰벼는 여물어 농풍을 기약하고

後圃葡緋諧味豊(후도포비첨미풍)
뒤 채포에는 포도가 검붉게 익어 단맛이 넘치네

勸讀良書迎好節(권독량서영호절)
좋은 계절 맞이하여 양서 읽기를 권하며

天恩地利國均通(천은지리국균통)
천은지리가 온나라에 고르게 두루 미치네